

6

길과 골목, 곳곳에 담긴 도시 이야기



【6장을 열며】

대구 시내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예로부터 대구의 중심지였던 중구의 길 중에는 근대 이후 대구의 역사·문화·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발자취가 새겨진 곳들이 있다. 그 길을 통해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보자. 아울러 경상북도에 있는 유명한 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대구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심의 길
2. 문화·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대구의 길과 골목
3. 저마다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북도의 고개와 길

1

대구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심의 길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시 중구에 있는 <골목 투어 코스>의 길과 골목을 통해서 근대 이후 대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 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또 그 길에 있는 문화유산, 역사인물들도 만나보자.



향촌문화관

매년 200만 방문객이
중구를 찾는 이유

해마다 많은 여행객이 대구를 찾는다. 대구의 여행 프로그램 중에는 2019년까지 3년 연속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 있다.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골목 투어 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중구의 오래된 건축물을 답사하고 길과 골목을 걸으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구 지역은 고대부터 대구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오늘날 조선시대 건축물은 경상감영공원의 선화당 등 몇 개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말기부터 20세기 초 근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여럿 남아 있다.

길과 골목 사이사이에 자리한 채 저마다 도시의 역사를 머금고 있는 건축물들! 그 건물, 그 자리에 깃든 대구의 역사는 어떤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인기 있는 골목 투어 코스를 따라가 보자.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길

3.25km 길이의 코스. 조선시대 행정중심도시였던 대구의 자취와 20세기 초 상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한 대구의 산업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다. 경상감영공원,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의 1950~1960년대를 재현한 향촌문화관, 경찰역사체험관, 20세기 초 대구 최대 번화가였던 북성로, 삼국시대의 토성이 남아 있는 달성공원 등을 볼 수 있다.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1.64km의 이 코스는 볼거리가 특히 많은 곳이다.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는 청라언덕,



방천시장 옆 김광석다시그리기길

선교사주택, 3·1만세운동길, 대구 최초의 성당인 계산성당과 제일교회 건물,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이 살았던 집, 대구 약령시 거리 등을 볼 수 있다.

제3코스: 패션·한방길

2.65km 코스로 동성로와 남성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길이다. 약전골목, 귀금속거리, 대구 최고 변화가인 동성로, 전국 3대 전통시장 중의 하나인 서문시장 등을 볼 수 있다.

제4코스: 삼덕봉산문화길

4.95km 길이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를 주제로 하는 길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대구 미술의 중심지인 봉산문화거리,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건물 바위, 대구 유교문화의 중심이 된 대구향교 등을 볼 수 있다.

제5코스: 남산 100년 향수길

대구는 서양 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가 빨리 전파된 도시였다. 2.12km 길이의 제5코스에선 근대에 세워진 여러 종교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천주교 순교 사적지인 관덕정순교기념관, 오래된 교회인 남산교회, 천주교 사제를 양성한 성유스티노신학교, 프랑스 루르드 성모동굴을 본떠 만든 성모당, 샬트르성바로수녀원 등이 있다.



대구 지식플러스

중구 골목 투어의 이색 프로그램들

야경 투어
밤 풍경과 함께 대구의 문화 재와 명소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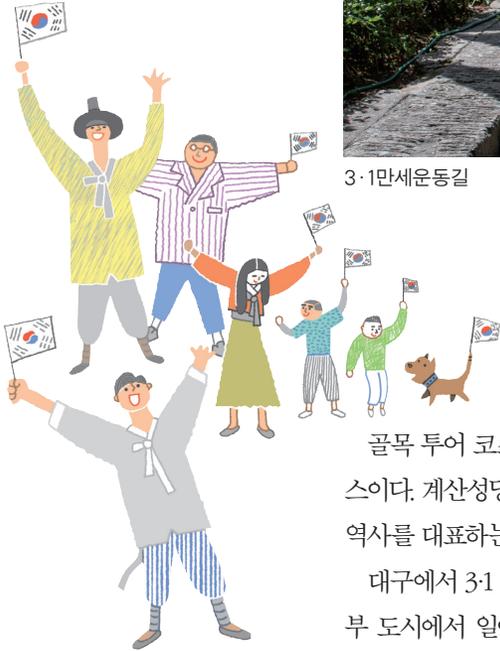
스탬프 투어
12곳의 대구 명소를 방문한 후 확인 스탬프 받기

독립운동 흔적 찾기 투어
3·1만세운동길 등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하기

근대골목 나무 투어
대구 도심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 역사와 문화적 배경 살피기



3·1만세운동길



대한독립만세!
도심 가득했던 그날의 함성

골목 투어 코스 가운데 중구 동산동의 3·1만세운동길은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코스이다. 계산성당 맞은편의 90개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좁은 길이지만,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대구에서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8일 일어났다. 3월 1일의 만세운동은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서 일어났고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며칠이 지난 뒤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대구에선 가장 큰 시장인 서문시장이 열리는 3월 8일에 맞춰 일어났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이들은 대구 지역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었다. 특히 계성 학교(현 계성고)와 신명여학교(현 신명고)의 교사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3·1만세운동길은 1919년 3월 8일 대구 지역 학생들이 일본 헌병의 감시를 피해 만세운동이 일어날 서문시장으로 향했던 길이다. 일부 학생들은 교복 대신 장사꾼 복장으로 독립선언서 낭독이 행해질 장소를 찾았다. 지금의 섬유회관 건물 맞은편에 자리한 시장 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이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외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행렬은 곧 대구의 도심을 향했다. 대구 경찰서(현재의 경찰역사체험관)~중로~약전골목~달성군청(현재의 대구백화점 자리)을 잇는 거리가 만세소리로 메워졌다. 대구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10일과 30일에도 열렸는데, 이때의 개최 장소는 지금의 염매시장 일대였다.

3·8 대구만세운동은 지금도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3·1만세운동길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성유스티노신학교

중구 여기저기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의 역사

대구 도심에는 사적 제290호인 계산성당을 비롯해 많은 근대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다. 그중 몇 곳을 살펴보자.

중구 남산동에 있는 성유스티노신학교(대구시 문화재자료 제23호)는 대구 천주교회 초대 교구장이던 안세화 주교가 중국인 벽돌공을 동원해 세운 신학교 건물이다. 1913년에 착공해 1914년에 완공했다. 1층 정면부의 연속된 로마네스크 풍 아치 회랑이 일품으로 꼽힌다.

중구 남성로에 있는 교남YMCA회관(등록문화재 제570호)은 1914년에 세워진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때 대구의 청년들에게 독립의지와 민족정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웅변대회, 토론회, 강연회 등이 이곳에서 열렸고, 1919년 3·1 만세운동 시기에는 대구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세운동 계획을 의논한 곳이기도 하다.

중구 동산동에 있는 제일교회(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0호)는 대구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다. 고딕 양식의 2층 건물은 대구 지역 근대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중구 달성로에 있는 아담스관(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5호)은 계성학교의 건물 중 하나였다. 1908년에 지어졌으며, 1919년 계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 이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달성공원 서침나무

골목 투어에서 만나는
대구의 역사 인물

이웃사랑의 본보기가 된 서침

달성공원 안에는 아름다리 회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나무 이름이 독특하다. '서침 나무'이다. 서침은 조선시대 초기 대구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 나무에 왜 사람 이름이 붙은 걸까?

서침의 집안은 대대로 지금의 달성공원이 있던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가 살던 집터에 관아를 지으려고 하자 기꺼이 땅을 내놓았다. 나라에서 서침을 칭찬 하며 그가 기부한 땅을 대신해 벼슬과 대구 지역의 다른 땅을 상으로 내리려 했다.

이때 서침은 이렇게 청하였다.

“제가 상을 받는 대신 금년에 환곡을 빌린 대구 백성들이 내야 하는 이자를 줄여 주 십시오.”

환곡이란 조선시대에 정부에서 먹을 것이 부족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던 제도이다. 갚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 빌린 것보다 많이 납부해야 했다. 나라에선 서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환곡을 빌린 대구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이 서침의 고마운 뜻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었으니, 그것이 달성공원에 있는 서 침나무이다.

민족종교인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

골목 투어 제1코스인 경상감영·달성길을 거닐다 보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 는 대구종로초등학교를 만날 것이다. 바로 이곳 교정에 '최제우나무(회화나무)'가 있다.



우현서루 옛터 기념 조형물 일루미네이션(대구은행 북성로지점)

1824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난 최제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건 동학의 창시자였다. 이 민족종교는 머지않아 백성들 사이에 퍼져 갔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최제우를 체포하기에 이른다. 잡혀 간 최제우는 경상감영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시절 회화나무가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나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애국계몽운동 지도자 이동진, 이일우 부자

골목 투어에는 독립운동 흔적 찾기 프로그램도 있다. 우현서루 터와 이일우 고택을 돌아보는 코스인데, 대구의 교육 역사와 관계 있는 유적들이다. 우현서루는 1904년 이동진이 청년에게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고자 개인 재산을 털어서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이동진의 아들 이일우는 아버지가 세운 우현서루를 운영하면서 많은 애국청년을 양성했다. 또 이동휘, 박은식 같은 독립운동 지도자가 우현서루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현서루는 일본에 의해 1911년에 강제로 폐쇄되었다. 그러나 이 터에서 신식학교인 교남학교가 1921년에 개교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대륜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이상화, 이육사, 현진건, 한국 현대문학의 개척자들

제2코스인 근대화골목길로 넘어가 보자. 먼저 두사층이 살다간 뽕나무골목을 만날 수 있다. 또 이곳 계산동에는 근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제안한 대구의 기업가 서상돈,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 이상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한국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한 소설가 현진건이 살았던 집이 모두 여기에 있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문학가, 미술가, 음악가들이 계산동에서 살았다.



2

문화·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대구의 길과 골목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에는 예술의 도시이다. 더불어 섬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군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 문화의 향기와 산업역군의 체취가 조화를 이루는 대구의 길과 골목에서 도시의 문화와 산업 발전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동 공연문화거리의 야외 공연

예술의 향기 가득한
대구 명물 거리

봉산문화거리

대구에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미술의 거리가 있다. 중구에 있는 봉산문화거리이다. 봉산동 대구학원에서 봉산육거리에 걸쳐 뻗어 있는 이곳에는 크고 작은 화랑 20여 개가 들어서서 있고, 연중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1993년부터는 매년 10월 약 1주일에 걸쳐 봉산미술제도 개최되고 있다. 거리 좌우로 들어선 화랑에서는 다양한 작품전과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이 외에도 설치미술 감상, 미술품 경매 등 흥미로운 미술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2004년 개관한 봉산문화회관은 또 다른 자랑거리로서 연중 다양한 전시회, 연극과 음악 공연, 문화예술 강연회를 선보이고 있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김광석은 1964년 대구시 대봉동에서 태어나 1980~1990년대에 활동한 유명 포크가수이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시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1996년 사망한 김광석을 추모하고 그의 음악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벽화 거리이다. 350m 길이의 벽면을 따라 김광석 조형물, 그의 초상화와 노래 가사들이 다양한 모습의 벽화로 표현되어 있다. 길 근처에는 김광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김광석스토리하우스가 있다.



수창청춘맨손 전시장

대명동 공연문화거리

연극 소극장, 극단 사무실 외에 미술작업실, 음악연습실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실이 있는 곳이며, 1년 내내 다양한 연극,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이다. 원래 유흥가였으나 대구 연극인들의 노력에 의해 공연문화거리로 탈바꿈했다. 이 거리에선 그동안 '소극장페스티벌', '한울림골목연극제',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예술축제가 열렸다. 2020년엔 이 거리에서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던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을 힐링예술제로 변화, 발전시킨 행사였다.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손

예술의 거리는 아니지만, 대구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손이다.

수창동에는 오래된 연초제조창(담배를 만들던 곳) 건물이 있었다. 노후한 공장 건물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13년 대구예술발전소로 부활하였다. 이곳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회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구예술발전소 옆에 있는 수창청춘맨손은 옛 연초제조창 직원들이 살았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청년작가들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이곳에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툰교실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다.



향촌동 수제화거리



대구의 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거리

대구 시내에는 대구의 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오래된 거리들이 있다. 먼저 향촌동엔 수제화거리가 있다. 1970년대에 생긴 약 300m 길이의 거리로, 수제화 재료인 가죽을 거래하는 가게부터 수제화를 만드는 가게까지 60여 개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다. 또 이 거리에는 수제화의 역사,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향촌수제화센터가 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교동은 조선시대에 향교가 있는 동네여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 한국전쟁 시기에 이 동네에 생긴 교동시장에는 귀금속거리, 전기전자제품거리가 있다. 교동 귀금속거리의 역사는 1970년대 교동시장에 시계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교동과 동성로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은 대구패션주얼리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달성공원 근처에는 섬유공장이 많이 있었다. 가까이에는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이 있다 보니 오늘날 대신동, 달성동 지역에는 섬유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많아 명물 골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달성공원 건너편에는 미싱거리, 서문시장 근처엔 오랜 기간 양말 가게들이 지켜 온 양말골목이 있고, 섬유회관 건너편에는 타월(수건) 가게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다.





북성로 공구거리

대구의 자랑 북성로 공구거리

대구역 앞 네거리에서 달성공원에 이르는 북성로, 태평로, 수창동, 인교동 등의 거리에는 공구를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대구의 경제 발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흔히 북성로 공구거리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여기서 취급하는 공구의 종류는 건축은 물론 공예와 일상에 필요한 도구를 포함해 산업 전 분야를 망라하며,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북성로의 역사는 100년을 넘게 헤아린다. 1907년 대구읍성이 철거된 후 읍성 북쪽에 새로 북성로가 났고, 이곳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때 북성로는 대구 최고의 변화가로 도로 포장부터 가로등 설치, 백화점도 대구에서는 이곳이 최초였다.

1945년 광복이 되고 북성로의 일본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그 후 한국전쟁 시기부터 이 거리는 오늘날과 같이 공구 전문 거래 지역이 되었다. 전쟁 기간 대구에 많은 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공구 거래와 수리 사업이 활발해진 덕분이다. 1960년대부터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고, 북성로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공구 전문 거리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북구 산격동에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생기면서 일부 공구점들이 그곳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북성로 거리에 많은 공구점이 영업 중이다. 공장, 건설 현장, 집 수리 등에 필요한 일체 도구들을 판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한다. 서문시장과 더불어 대구 경제 발전사의 살아있는 증거를 꼽으라면 바로 이곳, 북성로 공구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대구 지식플러스

삼성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도시 대구

북성로에서 가까운 인교동에는 <삼성상회 터>라는 기념 시설이 있다. 이곳은 한국의 경제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그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1938년 인교동에 삼성상회 문을 열었다. 삼성상회를 세운 기업가는 이병철이었다. 삼성상회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다가 나중에는 무역업도 하였다. 대구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기반을 다진 삼성상회는 서울로 진출하였다. 서울로 진출한 후에도 삼성은 1955년 대구시 침산동에 제일모직을 세워 대구의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삼성은 여러 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삼성그룹으로 성장하였고, 오늘날에는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를 가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대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봅시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상업 시설과 관공서가 밀집된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사람들은 도심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지만, 무질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주거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시 계획이 시행되면서 교외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좋은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고, 이주할 여건이 못 되는 빈민층들은 도심 주변 열악한 지역에 모여들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도심 주변 낙후 지역을 슬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낙후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거나 재개발 등의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한다('젠트리'는 영국의 지주 또는 신사 계급을 뜻하는데 빈민들이 살던 지역이 젠트리가 사는 지역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상권의 형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낙후된 도심 부근이나 시장과 같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예술가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든다. 그들의 아이디어로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면서 상권이 활성화된다. 상권이 발달함에 따라 임대료도 함께 치솟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사람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 결과 지역의 독특함은 사라지고,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그 지역은 특색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나 수창청춘맨손은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방천시장의 빈 상가에 예술가들이 공방을 차리고 시장 공간을 아끼자기하게 꾸미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진 만큼 상가 임대료도 크게 올라서, 원래 있던 시장 상인과 예술가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다른 지역의 예처럼 특색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상인들, 건물주나 지주, 관계기관이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주나 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것이 예술가와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MEMO



---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대구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 답사는 필수!

대구의 중심 지역인 중구엔 체험학습을 할 곳이 많다. 어떤 곳에서는 대구의 중요한 역사를 공부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선 대구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 발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몇 곳을 미리 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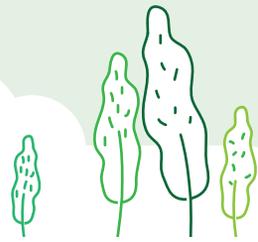
대구근대역사관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대구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원래 1932년 일본이 세운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을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쓰다가 오늘날 박물관으로 바꾼 것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물관은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대의 대구', '구국의 정신', '교육도시 대구', '역사 연표실' 등의 전시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다.



의료·선교박물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옆 청라언덕에는 두 개의 작은 박물관이 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 24, 25호인 선교박물관과 의료박물관이다. 선교박물관은 과거 선교사들의 사택을 개조한 곳으로 1, 2층에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 기독교의 전래 과정 등을 알려주는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의료박물관 역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동서양의 의료기기를 다양하게 소장·전시하고 있다.



북성로 공구거리

달성공원 건너편 북성로 공구거리 입구에는 망치와 펜치 등 여러 공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크게 서 있다. 공구거리에서 다양한 공구를 구경하면서 가게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내건 간판들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공구박물관도 꼭 들러 보시길!



향촌문화관

대구 도심에 가로지르는 중앙로에 있다. 1970~1980년대 대구 최고 변화가 있던 향촌동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향촌동 외에 북성로, 대구역, 교동시장 같은 곳의 역사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대구향토역사관

달성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으로, 달성공원과 대구시 관련 역사 자료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도시 역사와 생활문화의 변천사를 알려 주는 27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2개 전시실을 상설 운영 중이다. 구석기부터 현대까지의 대구 역사, 대구의 교육, 민속예술, 건축, 산업 전반을 알고 싶은 이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골목 투어>에 참가하려면?

대구시 중구가 실시하는 골목 투어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 참가 방법은 대구시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문화관광·골목 투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곳에선 대구시 중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장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3

저마다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북도의 고개와 길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고대시대부터 경상북도 지역엔 많은 길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간 그 길을 따라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졌고,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었다. 경상북도의 여러 길에 얽힌 역사를 살펴보자.



경북과 충청의 경계를 이루는 영주시 죽령

경상북도의 고갯길 이야기

길은 어디에나 있다. 도시와 도시, 도시와 촌락을 잇고, 산골마을을 오가게 하며 싹뿍 줄처럼 뻗어 간다. 옛날에도 지방과 지방을 잇는 길이 있었다. 그중에 경상북도와 다른 지역을 이어 주는 고갯길에는 이런 길들이 있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고갯길, 문경시 계림령(하늘재)

문경시 관음리와 충청북도 충주시 미륵리 사이에는 계림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우리 말로 ‘하늘재’라는 이름을 가진 고개로, 온달장군, 마의태자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 되는 곳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제8대 아달라왕 3년(156)에 계림령에 길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계림령은 신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이동하는 길이 되었다. 고려 말기엔 공민왕이 고려를 침범한 홍건적의 공격을 피해 이 고개를 넘어 경상도로 피란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삼국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였던 죽령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689m 높이의 이 고개는 문경의 계림령 못지않은 역사를 지녔다. 죽령을 개척한 인물 또한 신라의 아달라왕이었는데, 서기 158년 이곳에 길을 냈다.

죽령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다. 장수왕 말년인 470년에 죽령은 고구려의 땅이 된다. 그러다가 다시 신라의 영토로 회복된 것은 6세기(551년) 진흥왕 때였다.



문경새재 제1관문인 주흘관

이후 신라는 죽령 북쪽으로 땅을 크게 넓혔고, 한강 유역마저 손에 넣게 된다.

죽령 길은 긴 세월 동안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1년 죽령 아래에 터널이 뚫린 후부터 자동차들은 굽이굽이 산으로 뻗은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문경새재의 통행량, 조선의 고개 가운데 으뜸!

조선시대에 영남 지방에서 수도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동래(오늘날의 부산)와 한양을 잇는 영남대로였다. 당시 사람들은 영남대로를 따라 대구-칠곡-선산(구미)-상주-문경을 거쳐 충청도의 충주, 경기도의 안성과 용인을 거쳐 한양으로 향했다.

문경새재의 '새재'는 순우리말로 '새도 날아 넘기 힘들 만큼 높고 힘든 재(고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자 이름도 '새 조(鳥)에 '고개 영(嶺)'이 붙은 '조령'이다. 조령에 길이 난 것은 조선시대 초기였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는 문경새재는 조선시대 전국의 고갯길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닌 길이었다. 특히 영남의 선비들이 장원급제의 큰 꿈을 안고 지나던 길이어서 '과거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더 유명해진 고개, 추풍령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것은 1970년이였다. 이 도로가 생긴 후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고개가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사이에 있는 높이 221m의 추풍령이다.



안동 선비순례길



지역의 특색을 담은 낭만의 트레킹 코스

길 이름을 지을 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장점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이 많고 동해바다를 낀 경상북도에는 각 지방마다 아름다운 길이 있다. 그 중 몇몇 길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아보자.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호미반도는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 지도에서 꼬리 모양 지역에 위치한 반도이다. 호미의 호(虎)는 호랑이, 미(尾)는 꼬리를 뜻한다. 예로부터 포항 항구의 천연 방파제가 되어 준 반도로서 이곳 해안선 58km를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에는 '해안둘레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파랑길 & 영덕군 블루로드

'해파랑길'은 대한민국의 동해안 탐방길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것이다. 해파랑에서 '해'는 떠오르는 해를, '파랑'은 푸른 바다를 뜻한다. 해파랑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트레킹 코스로, 길이가 무려 770km다. 경상북도의 동해안 해안 길도 해파랑길에 속해 있다.

영덕군에는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트레킹 코스에 블루로드라는 이름을 붙인 길이 있다. 푸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이름을 지닌 블루로드는 영덕군에 있는 대계공원에서 출발-축산항구-고래볼해수욕장에 이르는 약 64.6km의 길이다.



조지훈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외씨버선길

안동 선비순례길

선비는 옛날에 글공부를 많이 하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을 일컫던 말이다. 안동 선비 순례길은 안동이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역사를 기념하여 지은 이름이다. 총 9개 구간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안동호의 풍경, 다양한 유교문화 유적을 두루 구경할 수 있는, 총길이가 91km에 이르는 길이다.

청송·영양·봉화의 가름한 외씨버선길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은 아름다운 산, 맑은 공기와 물로 유명한 청정지역이다. 이런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이들 세 지역과 강원도 영월군 지역을 잇도록 조성된 길이 바로 '외씨버선길'이다. 불이 좁고 가름한 외씨버선처럼 길 모양도 길게 뻗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영양군 출신 시인인 조지훈의 「승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들린 외씨버선이여" 라는 시 한 자락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군위 Inkaksa

대구·경북의
수많은 길을 걸었던
고려의 승려 일연



삼국유사의 고장인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완성한 Inkaksa가 있어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했다. 해마다 군위군에선 삼국유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삼국유사 관련 역사지식을 겨루는 행사인 '삼국유사 퀴즈대회'이다. 2019년에 11회 대회가 열렸다.

1206년 대구 근처에 있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9살 때 집을 떠나 스님이 되었다. 구족계를 받으며 이름을 회연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일연으로 바꾸었다.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일연은 22살이던 1227년 스님들이 치르는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일연은 장원급제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에겐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 일연은 고향 근처에 있는 대구의 비슬산으로 내려왔다. 비슬산에 있는 암자에서 수년간 공부한 일연은 고려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다.

일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곳곳의 절을 찾아다니며 불교를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1264년부터 몇 년 동안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오어사, 대구의 비슬산 인흥사에서 제자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1277년부터 1281년까지는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운문사에서 불교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 사이 일연은 우리 역사 속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삼국유사』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역사서이다.

승려가 된 후 대구·경북의 여러 길을 걷고 또 걸었던 일연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도 경상북도에 있는 절이었다. 오늘날 군위군에 있는 Inkaksa라는 절이다. 그가 Inkaksa에 온 것은 군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일연은 Inkaksa에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완성하였다. 『삼국유사』는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역사, 스님과 불교 문화재 이야기, 전설 등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